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字日報 제1052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음력 12월 1일)

일주일 새 고병원성 AI 잇따라 검출

구좌읍서 사체로 발견된 알락오리 AI H5N1형 확진
을겨울 들어 두 번째… 도 “감염력·전파력 매우 높아”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17곳 중 16곳 이동제한 연장

제주지역에 날아든 철새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변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연장됐다.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겨울철새인 알락오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1형으로 확진 판정됐다.

이는 올겨울 들어 도내 두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로, 앞서 지난 5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

안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도 고병원성이 검출됐다.

제주도는 두 번째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농가 17곳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동 제한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특히 17곳 농가 중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은 올겨울 첫 번째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지역과도 반경 10km 이내에 놓여 있어 이미 지난 10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들 농가는 농장 내 AI전파 등

이상이 없으면 오는 27일을 기해 이동 제한 조치에서 해제될 예정이지만 고병원성에 감염된 철새가 또다시 나타나며 사흘 더 밭이 묶 이게 됐다.

다만 이 기간 출하 등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농가는 사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제주도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되자 농가로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농가에서 발생하면 키우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한다.

특히 올겨울 유행하는 AI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과 전파력이 10배 이상 높아 농가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

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주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과 축산관계자 통행을 차단하는 한편, 방역 장비를 총동원해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21년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도내 한 농가가 전북 군산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사들인 오골계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돼 해당 농가를 포함해 주변 농가 34곳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 등 1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2021년에는 제주시 한림읍 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사육중인 오리와 닭이 살처분 됐으며 2017년과 달리 발생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도, 자연재난 대응 분야
올해 355억 대 예산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봄과, 침수 사고 예방, 국가하천 정비 등 자연 재난 대응 분야에 355억7800만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정책과 연계해 주민대피지원단 역할을 확대하고 올레순찰대를 보강한다.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 89개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대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침수, 봉고 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1리 자연해위험개선지구 1곳과 제주시 조천읍 대흘2리와 구좌읍 세화리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2곳 등을 대상으로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월에 만개한 매화 포근한 날씨를 보인 18일 제주시 신산공원에 매화꽃이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상

코팅필름을?

기파?

장수필름 가격에!

무적이 오래 가는

코팅스트롱

새미그룹을 검색해보세요

- 오래가는 무적성능!
- 6종 구조, 뛰어난 내구성!
- 0.15, 0.10, 0.06mm

구매 문의

1877-1447



알림

제1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직거래 박람회

3. 26(목) ~ 3. 29(일) 부산 벡스코

한라일보는 전국 지역 대표 신문사와 공동으로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의 판로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해 '제1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를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부산광역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본 박람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정 농축수산물, 전통주, 발효식품, 기능성식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며 식품 외에도 그 지역의 문화 및 관광 등의 기타 콘텐츠,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박람회를 찾은 소비자에게 불가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러 식품관련 바이어를 특별 초청해 각 지역의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판로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지역 식품에 대한 인천성 확보와 신뢰를 갖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전국 농축산 식품관련 업체 약 200개 업체가 참여하는 본 박람회의 참여 신청은 1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라일보 웹페이지 (<http://www.ihalla.com/popup/foodexpo.html>)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1월 16일(금) ~ 1월 30일(금) 18:00까지

신청대상 도내 농·축산물 식품제조공업체로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법인, 개인)

신청방법 웹페이지 (<http://www.ihalla.com/popup/foodexpo.html>) 신청서 다운
우편 및 방문 접수(1월 30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산업과

주최 한라일보, 강원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일보, 충도일보, 전북도민일보
주관 (주)한국전시산업원
후원(예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의 도 식품산업과 ☎ 064)710-3174 / 한라일보사 ☎ 064)750-2540

제주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선정 장애인들 월평균 42만원 이내 맞춤형 활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시 거주 장애인들의 복지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시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주 장애인들은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내에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보다 규모

를 확대해 33개 시군구 장애인 960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

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

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해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